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조선·반도체 ‘증가’, 섬유·건설 ‘감소’,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3%), 반도체(1.8%)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유지 (1.3%)	증가 (6.3%)	유지 (0.8%)	감소 (-2.1%)	유지 (0.5%)	증가 (1.8%)	유지 (0.6%)	유지 (0.7%)	감소 (-2.7%)	유지 (-0.3%)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지만 내수는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어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 전망

- 미국,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어 일반기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른 기계 자급률 상승,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엔저 장기화에 따른 수출 수요 감소 요인도 상존한다.
- 2023년부터 이어진 기계산업의 내수 감소세는 점차 심화되어 2025년 상반기까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이 증가하지만 내수가 감소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은 4,310만 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체는 2024년 상반기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37.4%를 수주하여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4년 상반기에 558.9만 CGT를 기록했으며, 가스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3%(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 주요 수출국 경기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IT 수출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되지만, 고용과 관계가 약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있어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시장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5G 스마트폰 전환, 온디바이스 AI 등 신기술 혁신으로 2024년에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디바이스 AI 랩탑 PC 등 신제품 출시로 AI PC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전자산업은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IT제품 수요 증가와 시장이 안정화되어 2024년 하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8%(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하반기에 의류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회복으로 산업용 섬유 소재 수요가 확대되지만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래유망 산업용 소재의 글로벌 수요 확대, 글로벌 브랜드의 소싱오더 회복 및 연말 쇼핑 시즌 등 상반기 부진을 상쇄하여 연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높은 물가상승률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로 단순 노동력 수요가 많은 업종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기존 일자리 감소 요인이 상존한다.
-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1%(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5> 철강 : 내수 수요 부진에도 신흥시장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로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토목 중심으로 일부 수요산업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 및 미국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확대, 하반기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이 전망되어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3.9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로 철강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반도체 :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반도체 수출은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36.9% 증가한 1,35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 등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한 점진적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내수 시장이 소폭 축소되지만 글로벌 주요 시장의 수출 호조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이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기 부진과 고금리 및 높은 가계부채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신차 구매 의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북미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와 신차 수출 효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가 예상된다.
- 국내 수요위축에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 글로벌 경기 회복, IT제품의 OLED 채용 확대, OLED TV 경쟁력 향상 등의 호조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 파리 올림픽 개최, AI 적용 제품으로 교체 수요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트북 등 IT 제품의 OLED 탑재 확대, 자동차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 신시장 수요 창출로 디스플레이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OLED TV 가격경쟁력 향상 및 OLED TV 출하량 목표 확대 등 OLED가 LCD를 대체하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9> 건설 : 고금리 유지,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2023년 들어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건설 공사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했으며, 2024년 정부 SOC 예산은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다.
- 2024년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전문직별 공사업 계약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높아진 공사비를 고려하면 실질공사비는 감소했으며 경기실사지수(BSI)도 낮아 체감 경기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건설산업 수요와 건설 투자가 감소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58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하반기에도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 지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3%(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붙임 :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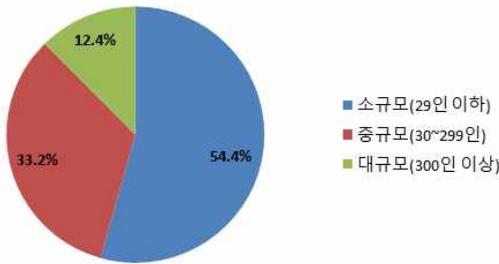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책임자	팀 장	정순기 (043-870-8229)
		담당자	부연구위원	정재현 (043-870-8380)
<공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담당자	실 장	이기환 (02-6009-3230)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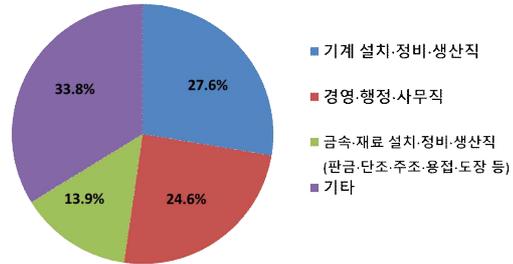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4년 상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83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337천 명)의 5.4%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6.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40.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8.7%), 경남 창원시(5.4%), 경기 시흥시(4.0%), 경남 김해시(3.8%), 부산 강서구(3.4%), 경기 안산시(3.3%), 인천 남동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7.6%), 경영·행정·사무직(24.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3.9%)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817천 명) 대비 2.0%, 16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7천 명, 채용인원 3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2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25.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p 낮고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17.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6.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7.3%), 경영·행정·사무직(15.7%), 제조 단순직(15.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0.7%), 경남(13.0%), 충남(8.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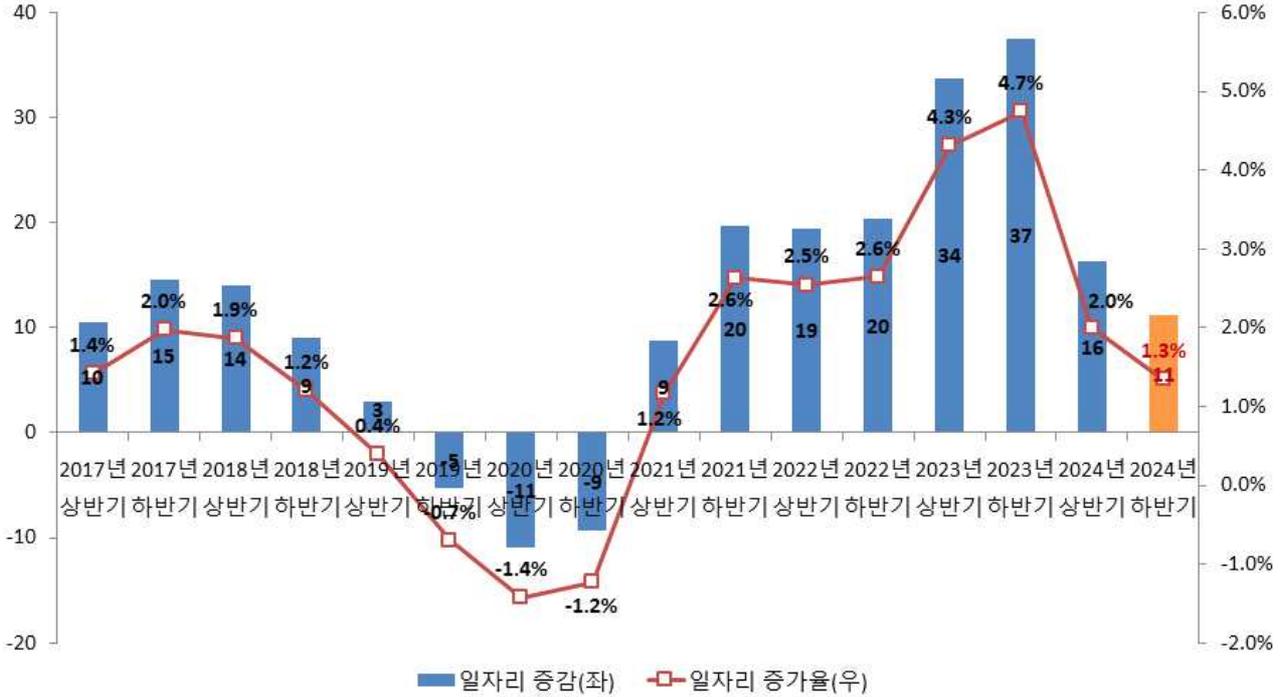
경기전망

- (전망) 하반기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79억 달러 내외로 전망
 - 미국과 중동,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기계류 對세계 수입 감소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의 對미국 투자 등에 따른 기초산업기계, 기타기계류 수요 확대가 전망되며, 중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우위 및 자국기업 우선 정책 등으로 對중국, 對아세안 수출은 하락세 지속 예상
- (수출) 하반기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지속 등 호조 요인과 중국 내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른 중간대 자급률 상승,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엔저 장기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상존
 - 중국의 내수 중심 경기 회복 기조에 따른 수입 수요 둔화 및 對세계 수출 점유율 확대 우려
 - 중동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물류비 불안정 등 지정학적 리스크 존재
- (내수) 2023년부터 이어진 기계산업의 내수 감소세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장기적 침체 예상
 - 스마트 장비 및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19.7%) 대비 감소폭이 완화되었으나 2025년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1.2	1.2	2.6	2.5	2.6	4.3	4.7	2.0	1.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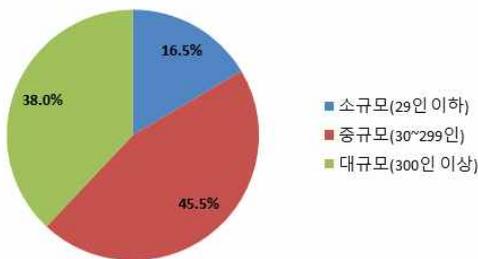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하반기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3%(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공급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경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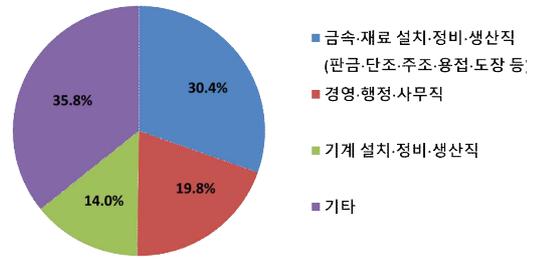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4년 상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337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4.6%), 울산 동구(29.2%)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4.1%), 부산 영도구(3.2%), 경남 창원시(3.0%)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0.4%), 경영·행정·사무직(19.8%),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0%)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104천 명) 대비 9.4%, 10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나머지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며,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크게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1천 명, 채용인원 4.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8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14.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6.4%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42.4%)',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7.1%)',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15.3%)'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6.0%), 경영·행정·사무직(14.6%), 제조 단순직(13.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40.4%), 울산(37.4%), 전남(16.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2.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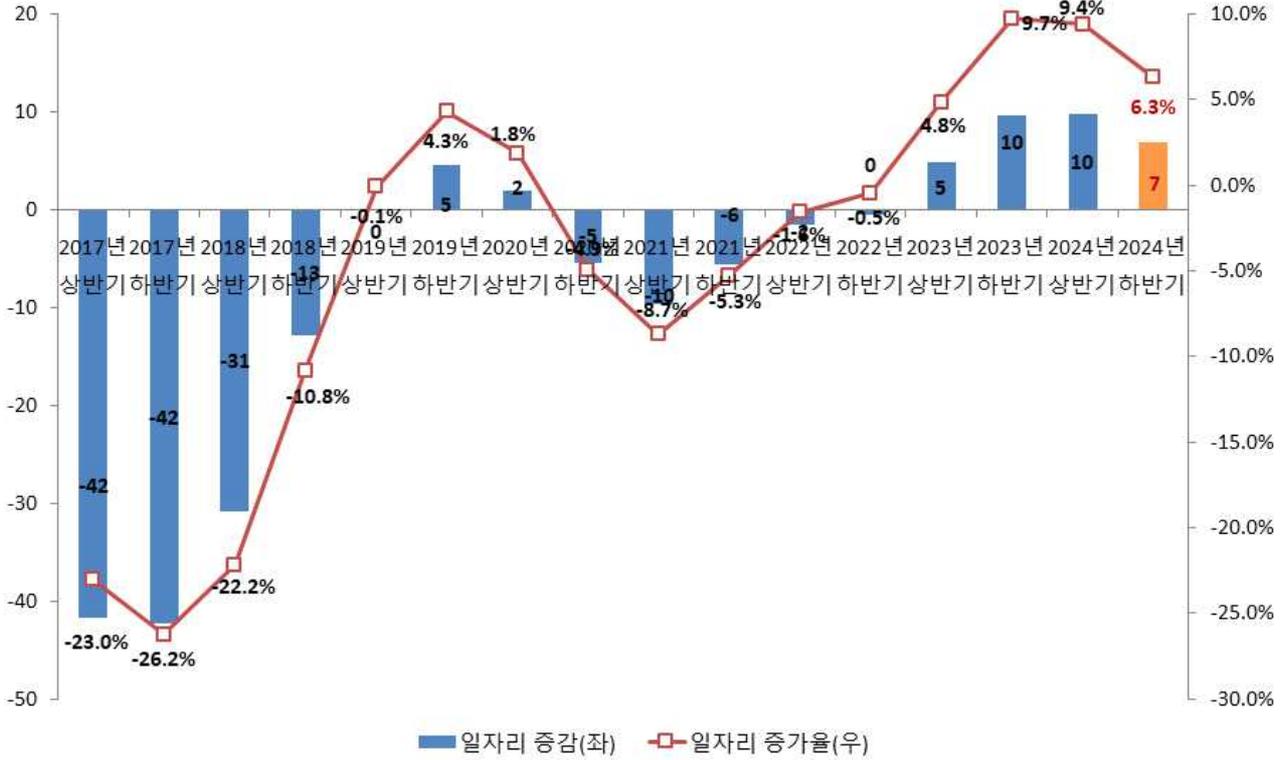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주) 세계 경기하방 기조에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글로벌 발주 전망은 2023년 4,170만 CGT에 비해 소폭 상승한 4,310만 CGT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조선업계도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LNG 운반선이 주도, 석유화학제품운반선, LPG운반선에 이어 컨선 수주도 활성화
 - 한국 2024년 상반기 전세계 고부가가치선 수주 37.4% 기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22년 48.0%, '23년 41.2%)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인
- (건조) 2024년 상반기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558.9만 CGT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가스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의 건조량이 증가해 1,000만 CGT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수주잔량)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량 증가로 2024년 6월 현재 국내조선소는 37.9백만 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치 이상에 해당되는 일감을 확보
- (선가) 2024년 신조선가는 전년도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2024년 6월 현재 클락슨 선가지수가 187.2를 기록
 - 전선종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벌크선, 컨테이너선이 상승세를 주도, LNG운반선은 2023년 하반기 고점을 기록한 후 일시 하락
- (수출) 2024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약 242.2억 달러로 전망됨
 - LNG선 수주 및 건조 우위에 따른 수출증가세 전망
 - 2024년 상반기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한 115.3억 달러 기록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4.9	-8.7	-5.3	-1.6	-0.5	4.8	9.7	9.4	6.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하반기 조선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공급계약이 일부 해소되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3년 하반기 대비 6.3%(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남, 울산, 전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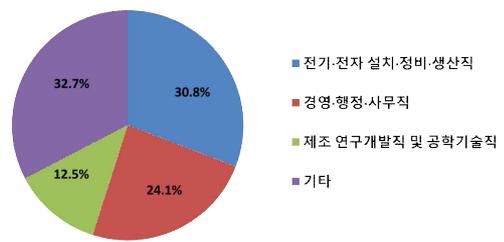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4년 상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5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337천 명)의 4.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7.4%), 전기장비 제조업(3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3%)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20.0%), 서울 영등포구(10.1%), 경기 용인시(6.3%), 경기 화성시(3.8%), 경기 안산시(3.6%), 경남 창원시(3.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0.8%), 경영·행정·사무직(24.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기술공학직(12.5%)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749천 명) 대비 0.7%, 5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6.0천 명, 채용인원 21.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5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17.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8.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8.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4.8%), 경영·행정·사무직(15.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1.3%), 경남(7.8%), 경북(7.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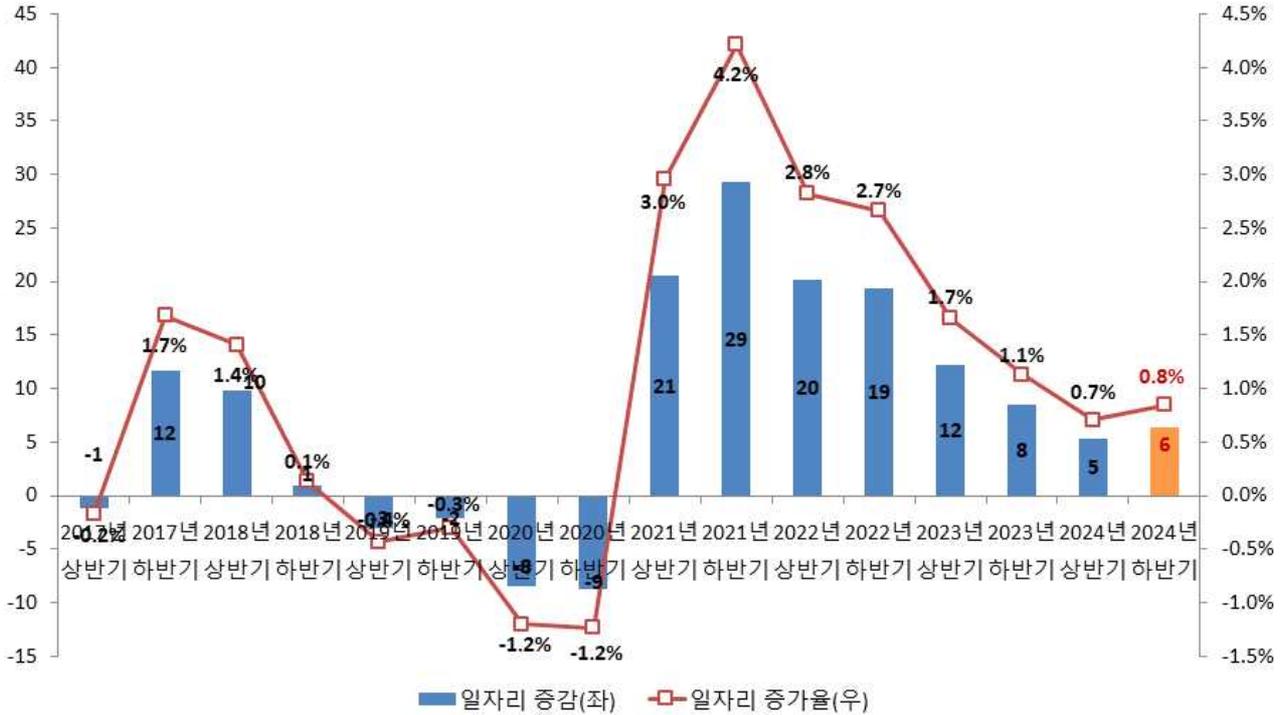
경기전망

- 글로벌 IT 수요 확대, 주요 수출국 경기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IT신산업군 수출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됨에 따라 산업군 전체 19.6%,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3.7% 증가 전망(산업연구원, '24.5월)
 - * 정보통신기기는 하반기 수출이 16.6%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 예상되며, 가전은 하반기 1.6%, 연간으로는 2.6% 증가 전망
 - (스마트폰) '24년 스마트폰 시장은 11억 9,500만 대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21년 이후 3년만에 오름세를 달성하는 등 성장 가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TechInsights, '24.5월)
 - * 재고 안정화와 더불어 신형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 5G 스마트폰 전환, 온디바이스 AI 등 신 기술 혁신에 힘입어 성장세로 반등 전망
 - (SSD) AI 서버용 SSD 수요 급증 등으로 글로벌 SSD 출하량·매출액 모두 반등 전망(Gartner, '24.5월)
 - * (소비자용) 온디바이스 AI 노트북 신제품 출시, 전방 PC 시장 회복 등으로 출하량(3.7%), 매출액(84.9%) 상승 예상
 - * (기업용) '24년 AI 서버 확대와 더불어 HDD→SSD의 수요 이동, 낸드 가격 회복, QLC(4bit) eSSD 수요 급증 등으로 출하량(9.2%), 매출액(87.1%) 반등 예측
 - (PC) AI PC 시대 본격 개막 속, 그 간 침체됐던 시장은 AI PC 신제품 출시 등으로 활력을 되찾으며 시장 안정화 기대감이 고조(Gartner, '24.5월)
 - * 글로벌 고물가 기조로 소비자용(8,897만대, 0.7%↑) 수요 회복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윈도우 11 업데이트에 따른 비즈니스용(1억 5,918만대, 3.4%↑) 교체 수요 발생, AI PC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시장은 반등 전망
 - (태블릿PC) 수요 동인 약화 등으로 내림세를 지속, 다만 하락폭은 둔화(Gartner, '24.5월)
 - * 글로벌 경제 회복 기조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는 한자릿수 대로 완화되었으며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 등으로 '24년 시장(1억 2,785만대, 0.9%↓)은 비교적 소폭 하락에 그치며 안정화 구간에 진입 전망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1.2	3.0	4.2	2.8	2.7	1.7	1.1	0.7	0.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하반기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8%(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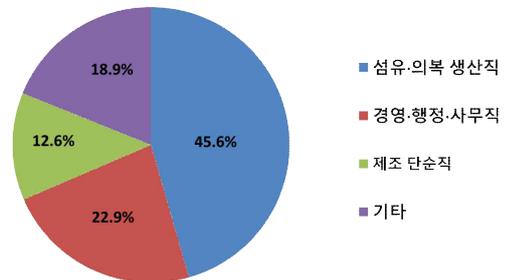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337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7%)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7%), 경기 포천시(3.7%), 경기 양주시(3.6%), 경북 구미시(3.4%), 서울 강남구(3.1%), 대구 달서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5.6%), 경영·행정·사무직(22.9%), 제조 단순직(12.6%)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157천 명) 대비 3.7%, 6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며,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9.1천 명, 채용인원 7.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4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14.9%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6.6%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4.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3.6%)',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1%)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52.0%), 경영·행정·사무직(16.0%), 제조 단순직(14.9%)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40.2%), 경기(18.6%), 대구(15.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31.2%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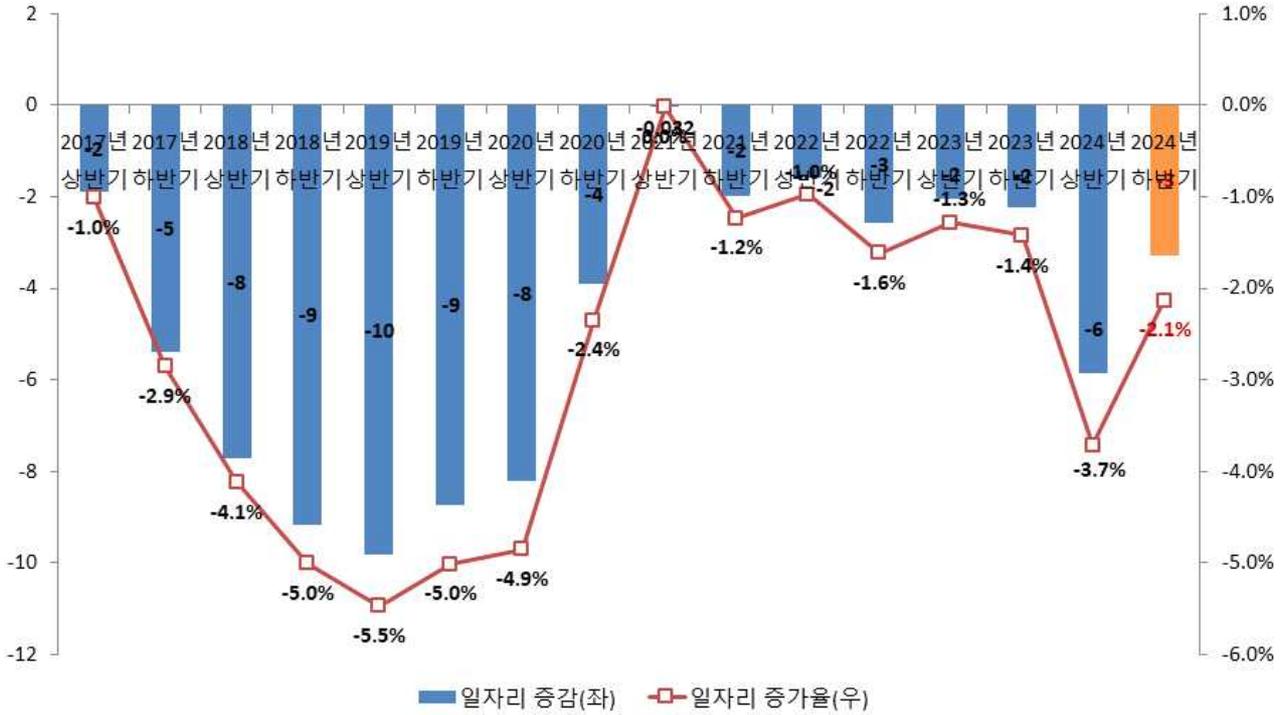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미래유망 산업용 소재의 글로벌 수요 확대, 글로벌 브랜드의 소싱오더 회복 및 연말 쇼핑 시즌 등의 요인이 상반기 부진을 상쇄하며 연간으로는 증가 전망
 - 하반기 국내 아라미드 및 탄소섬유 증설분 생산 본격화, 미국 중심의 견조한 증가세, 중국·아세안 등 한류지역으로의 수출 회복 예상
 - * 2024년 반기별 섬유류 수출(억불, 전년동기대비 %) : 상반기(53.4, -4.9), 하반기(56.3, 6.2)
- (생산) 아라미드·탄소섬유의 캐파 증가분에 대한 생산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 약화, 채산성·수익성 악화에 따른 해외 생산 확대로 생산 위축
 - 하반기 해외 생산의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고부가 소재 생산 증가분의 범용 소재 생산 감소분 대체 어려움으로 전체 섬유 수출량 감소
 - * 2024년 반기별 섬유류 생산(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 상반기(29.0, -3.8), 하반기(25.1, 1.1)
- (내수) 하반기 의류 소비 증가 및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 회복에 따른 산업용 섬유 소재 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 전망되며, 연간으로는 소폭 감소 예상
 - 하반기 소비개선 및 산업생산 확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및 C-커머스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라 섬유패션 내수 소폭 증가
 - * 2024년 반기별 섬유류 내수(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 상반기(33.8, -1.8), 하반기(31.3, 1.2)
- (수입)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국내 생산 중단 품목(POY사 등)의 수입 대체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하며 상반기 증가세 지속
 - 하반기 C-커머스의 국내 저가 의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수입 증가, 글로벌 섬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외국산 원부자재 수입 증가
 - * 2024년 반기별 섬유류 수입(억불, 전년동기대비 %) : 상반기(90.8, 1.3), 하반기(103.6, 4.5)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4	0.0	-1.2	-1.0	-1.6	-1.3	-1.4	-3.7	-2.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하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2023년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와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서울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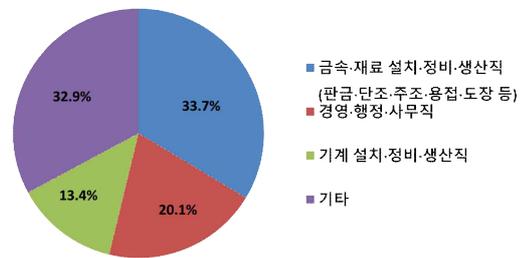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7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5,337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24.6%), 충남 당진시(11.4%), 경남 창원시(8.5%), 전남 광양시(4.3%), 울산 울주군(4.0%), 인천 동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3.7%), 경영·행정·사무직(20.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4%)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115천 명) 대비 1.6%, 2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7천 명, 채용인원 4.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2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20.1%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5.0%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11.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1.5%)',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3%)'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9.3%), 제조 단순직(17.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2%)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북(22.7%), 경기(18.6%), 충남(15.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5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구인 인원 비중이 19.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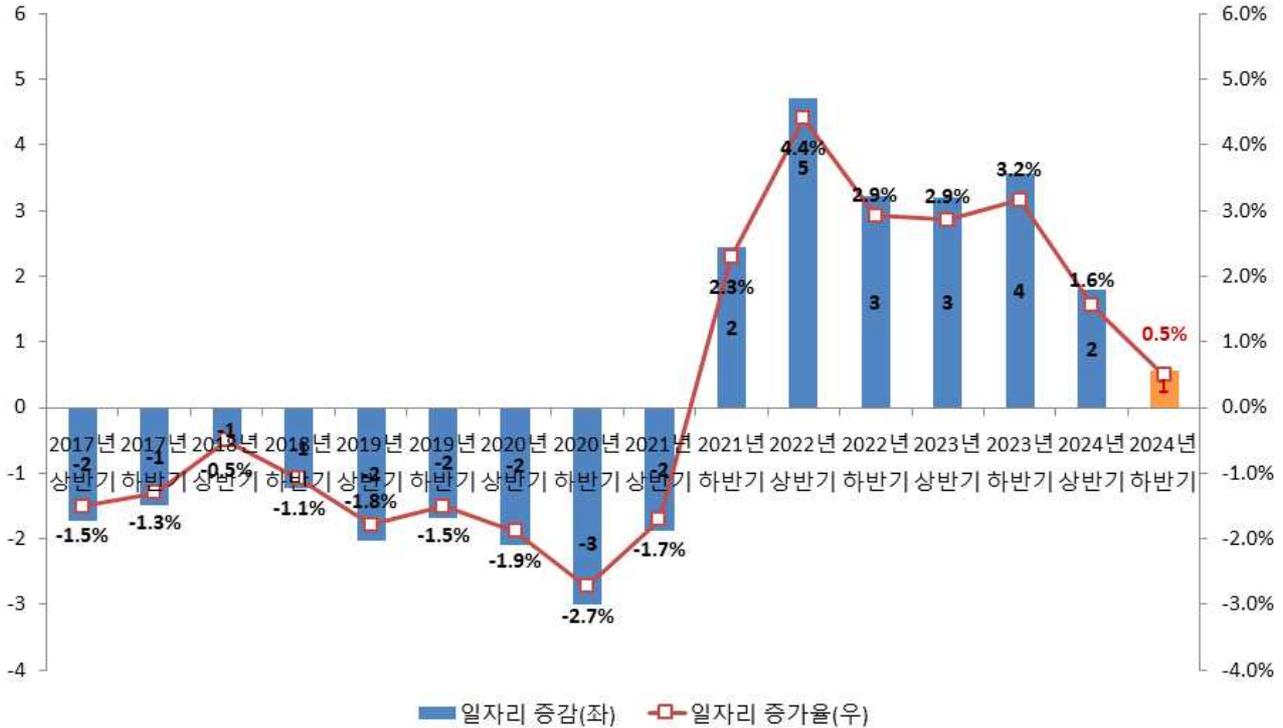
경기전망

- (내수) 하반기 토목 중심으로 일부 수요산업 회복이 전망되나,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24.8백만톤 예상
 - 2023년 이후 민간 중심 수주 감소로 부동산 침체 지속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 (수출)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확대될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 유지 등 글로벌 철강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13.9백만톤 예상
 - 인도 등 신흥국 성장 및 미국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 하반기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 전망, 미국 등 주요국의 대중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 (생산) 제한된 글로벌 환경 속에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34.1백만톤 예상
 - 부품공급 불안정 해소에 따른 자동차 공장 가동률 상승 및 기계산업 내수 개선으로 강재 수요 증가
- (수입) 지속된 저가 중국산 수입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7.3백만톤 예상
 -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저가 철강재 유입 지속 등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7	-1.7	2.3	4.4	2.9	2.9	3.2	1.6	0.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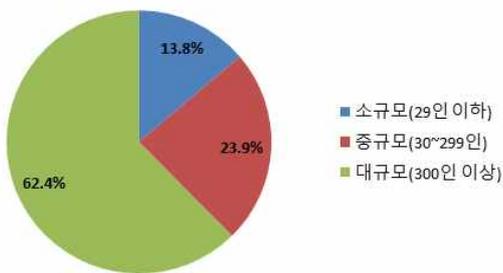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5%(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남, 전남, 울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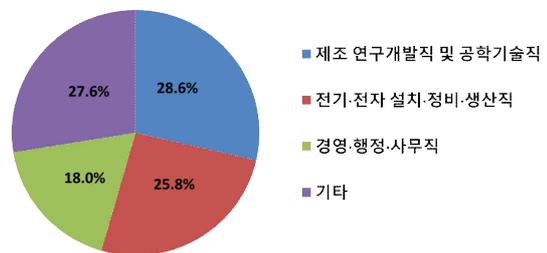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337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8.1%)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1.9%)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1%), 경기 화성시(9.7%), 충북 청주시(8.2%), 충남 천안시(6.5%), 경기 평택시(5.8%), 경북 구미시(4.6%), 경기 부천시(4.0%), 충남 아산시(4.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8.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5.8%), 경영·행정·사무직(18.0%)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145천 명)에 비해 0.8%, 1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9천 명, 채용인원 6.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4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26.5%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4.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2%)'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1.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1.9%), 경영·행정·사무직(13.9%)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63.9%), 충남(16.0%), 인천(7.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8.8%로 나타남

경기전망

- (2024년 글로벌 시장 전망) AI 수요확대 및 시장 호황으로 2023년 5,488억 달러 대비 약 16.4% 성장한 6,343억 달러(출처:OMDIA)로 성장 전망
 - (메모리) AI 및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강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46.4%의 높은 성장 예상
 - *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20)1,281→('21)1,685→('22)1,443→('23)946→('24e)1,385
 - * D램 시장 규모: 2023년 512억 달러 → 2024년 801억 달러 (약 56.4% 증가 예상)
 - * NAND 시장 규모: 2023년 387억 달러 → 2024년 534억 달러 (약 38.0% 증가 예상)
 - (시스템반도체) IT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 예상
 -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20)2,707→('21)3,359→('22)3,616→('23)3,614→('24e)4,022
- (2024년 수출 전망)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2023년 (986억 달러) 대비 약 36.9% 증가한 1,350억 달러 전망
 - (메모리) HBM 시장 확대로 D램 재고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60.5% 증가한 825억불 전망(2023년 514억불)
 - * 메모리 수출비중(반도체 내, %): ('20)64.5 → ('21)64.4 → ('22)57.1 → ('23)52.1→ ('24e)61.1
 -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및 가동률 개선으로 2024년 수출은 약 9.8% 증가한 472억 달러 예상(2023년 430억 달러)
 - * 시스템반도체 연간 수출액 전망(억\$): ('20)303 → ('21)398 → ('22)507 → ('23)430→ ('24e)472
- (2024년 투자 전망) 글로벌 시장 회복 및 AI산업 성장 기대로 점진적인 Capa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9% 상승 전망
 - 업황 회복 정도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세대 공정전환과 HBM 등 신규제품 생산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며 공급 조절 예상
 - *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10억\$, Gartner): ('21)152.4 → ('22)182.4 → ('23)171.8 → ('24e)175.1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9	4.7	4.2	4.3	4.9	4.4	2.3	0.8	1.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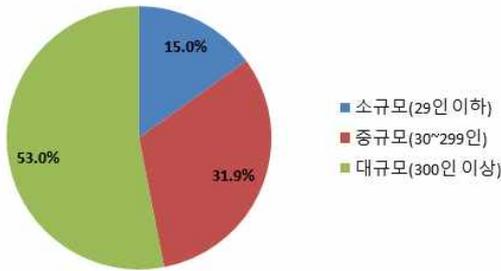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 반도체 업종은 전년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 동기 대비 1.8%(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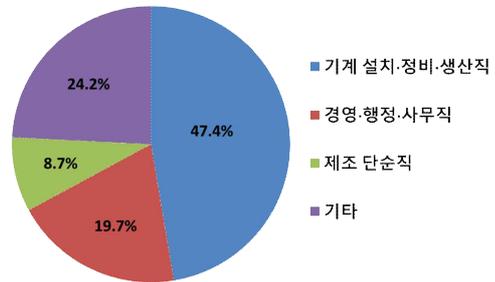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9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337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0.9%), 울산 북구(9.8%), 경기 화성시(6.2%), 충남 아산시(5.8%), 경남 창원시(4.7%), 경북 경주시(3.5%), 서울 강남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4%), 경영·행정·사무직(19.7%), 제조 단순직 (8.7%)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3년 상반기(391천 명) 대비 1.6%, 6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2천 명, 채용인원 11.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는 2.8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19.4%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7%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11.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6.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3%)'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1%), 경영·행정·사무직(15.9%), 제조 단순직(14.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0.6%), 경남(15.3%), 충남(14.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 경험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2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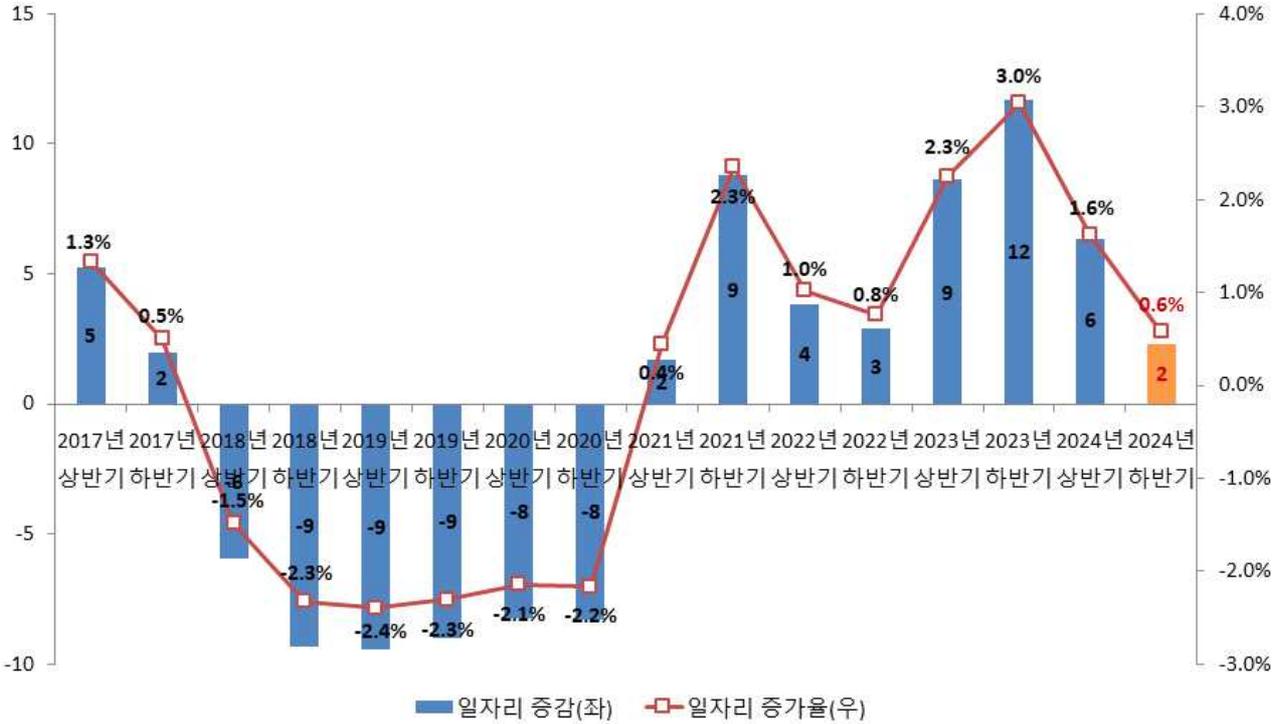
경기전망

- 2024년 하반기는 국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주요 시장의 수출 호조 기조가 지속되고 다양한 수출용 전기차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생산과 수출은 소폭의 증가 전망
 - (내수)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차량 생산 정상화, 전기차 등 활발한 신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과 고금리 및 높은 가계부채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신차 구매 의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내수 판매는 2023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84만대로 추정
 - (수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북미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와 신차 수출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한 140만대의 수출이 예상되며, 2024년 중 약 286만대의 연간 수출이 기대됨
 - * 자동차산업 수출액 규모: 2024년 1~6월 370억달러(전년 대비 3.8% 상승)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연간 완성차 수출액 747억불(전년 대비 5.4% 상승) 달성 전망
 - * 2024년 글로벌 자동차시장 수요는 대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준수한 판매 실적이 이어지는 등 점진적으로 상향 전망('23년 8,785만대 → '24년 9,154만대 → '25년e 9,509만대)
 - (생산) 국내 수요위축에도 불구하고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견조한 수요로 인한 수출 호조 지속과 기존 대비 다양한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08만대 예상
 - * 2024년 연간 생산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24만대 예상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2	0.4	2.3	1.0	0.8	2.3	3.0	1.6	0.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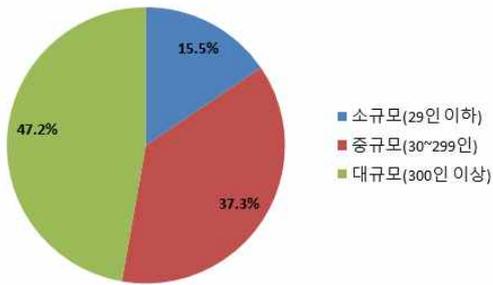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6%(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서울, 경남, 경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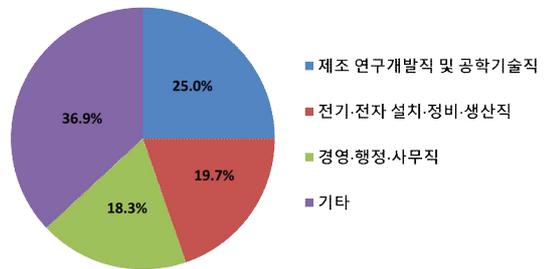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8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47.2%를 차지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5.5% 수준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5.0%),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9.7%), 경영·행정·사무직(18.3%)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117천 명) 대비 1.0%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99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6천 명, 채용인원 3.9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7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30.5%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0.3%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22.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3.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1.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7.1%),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6.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63.0%), 충남(22.9%), 충북(5.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1.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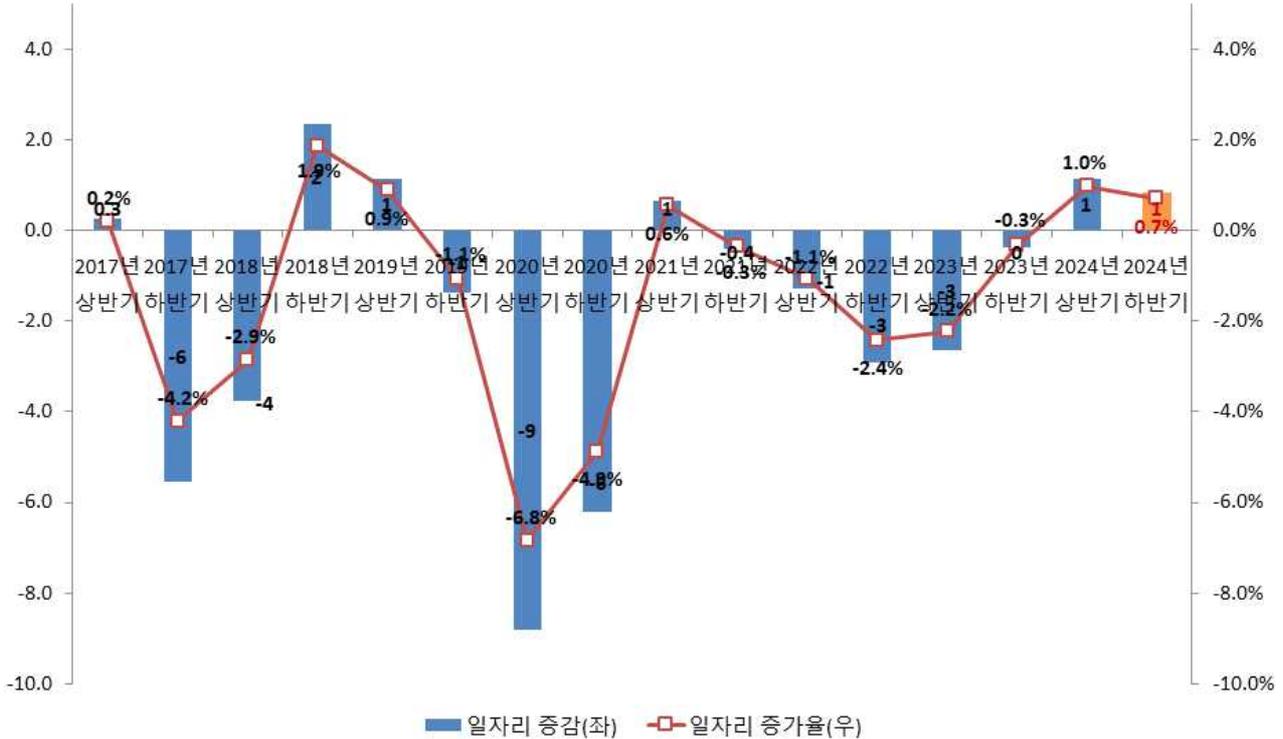
경기전망

- (업황) 하반기 디스플레이 시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대형 스포츠 이벤트(유로 24, 파리올림픽 등) 개최, AI 적용 제품으로의 교체 수요 등 여러 호재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706억불 예상
 - (TV) 하반기 유로24 및 파리 올림픽 등의 이벤트 특수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TV 수요 회복세 예상
 - (스마트폰) AI 기능이 추가된 아이폰의 출시로 신기능 적용에 따른 교체수요 기대
 - (IT) 노트북 등 IT 제품의 OLED 탑재 확대 및 자동차·투명 등 신시장 수요 창출로 글로벌 IT 분야 시장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한 171.9억불 전망
- (수출) 글로벌 경기 회복, IT 제품의 OLED 채용 확대, OLED TV의 가격 경쟁력 향상 등 업황 개선이 기대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한 115.5억불 전망
 - (TV) 국내 TV 세트업체의 OLED TV 출하량 목표 확대('23년 400만대→'24년 550만대) 계획, OLED TV 가격경쟁력 향상 등의 영향으로 TV용 패널 시장의 전년 대비 업황 개선 전망
 - (스마트폰) 아이폰 교체 수요 대응 출하량 증가 및 공급과잉률 해소로 하반기 긍정적인 수출 여건 예상
 - (IT) 노트북 등 IT 제품의 OLED 탑재 확대 및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 패널 선호도 증가 및 대면적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한 171.9억불 달성 전망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4.9	0.6	-0.3	-1.1	-2.4	-2.2	-0.3	1.0	0.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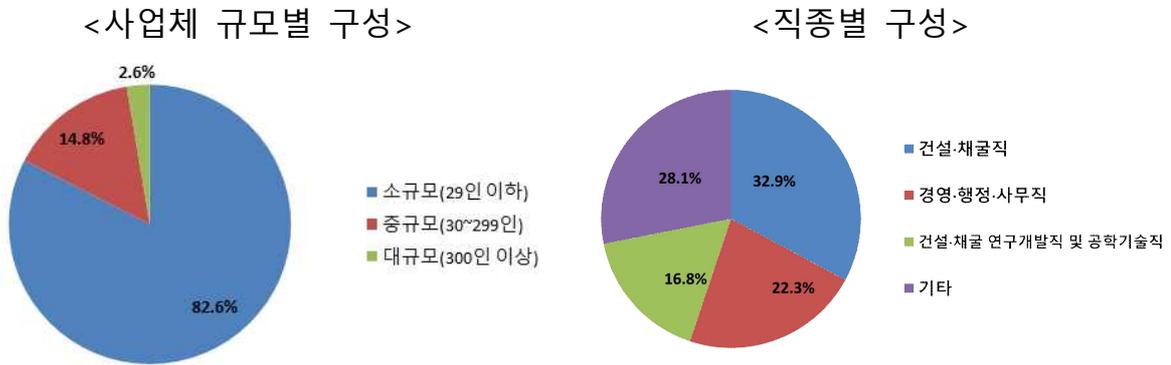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7%(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99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북, 충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건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근로자 현황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84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449천 명)의 7.3%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32.9%), 경영·행정·사무직(22.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6.8%) 등으로 구성
-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2,081천 명)에 비해 0.2%, 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60.0천 명, 채용인원 154.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5.3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3.3%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p 낮게 나타났으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5.0%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8%)',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9%)'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7%)'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64.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9.7%),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9.4%)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18.1%), 경기(10.8%), 충남(8.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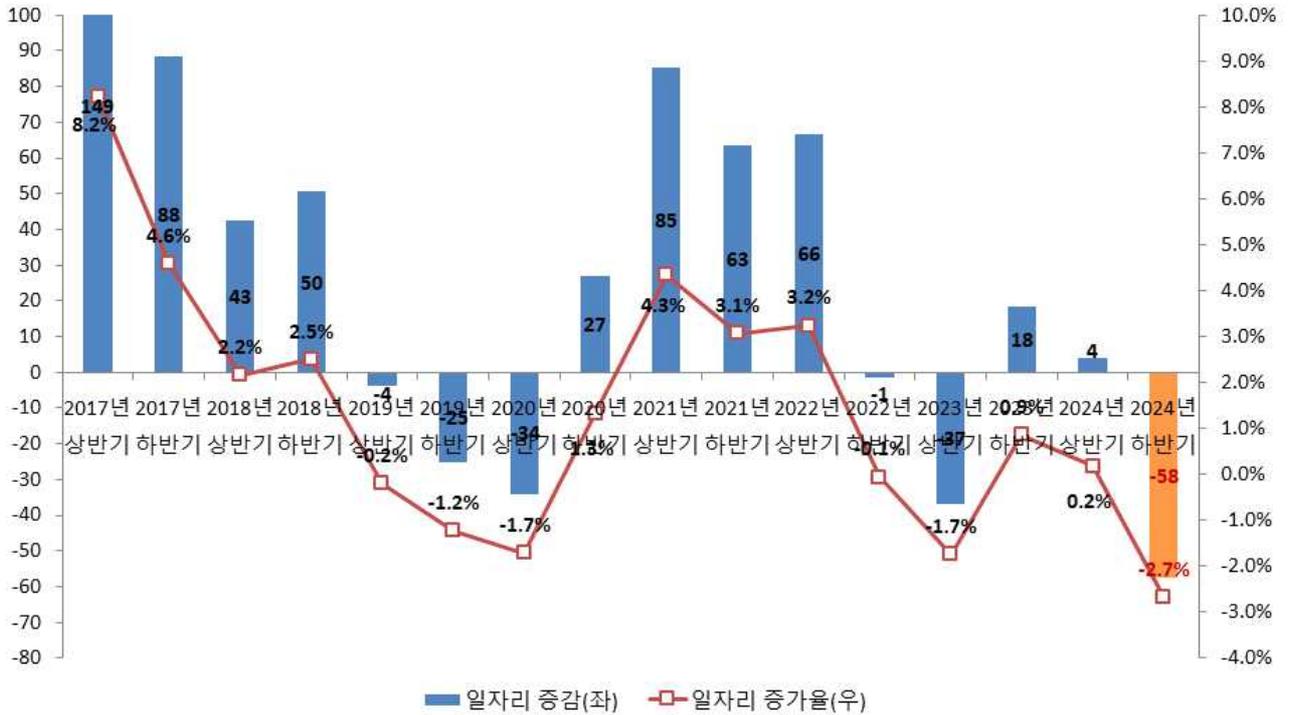
경기전망

- 2024년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으며, 건설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
 - 2024년 정부 SOC 예산은 2023년 25조 원에서 26.4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음
 - 2024년 하반기에는 금리 유지 기조,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하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2026년까지 연평균 1.8%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SOC 예산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동산 PF대출 등 자금 시장 경색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높아진 공사비로 실질 시공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1.3	4.3	3.1	3.2	-0.1	-1.7	0.9	0.2	-2.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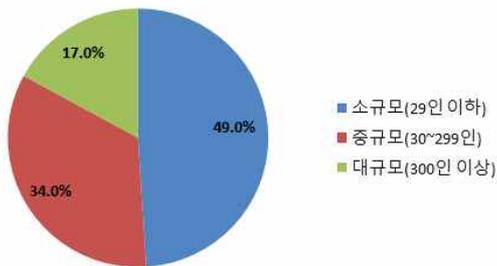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58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5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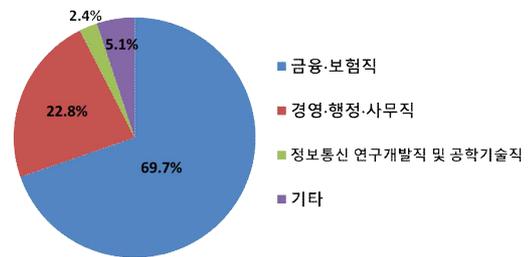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4년 상반기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780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449천 명)의 2.7%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69.7%), 경영·행정·사무직(22.8%),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4%) 등으로 구성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2023년 상반기(784천 명)에 비해 0.5%, 4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4년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7.5천 명, 채용인원 26.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7천 개
 - 금융 및 보험 업종의 미충원율은 2.7%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3%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3%)과 비교하면 5.6%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2.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0.5%)',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9.8%)'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4.4%), 경영·행정·사무직(18.6%),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41.3%), 경기(11.5%), 부산(7.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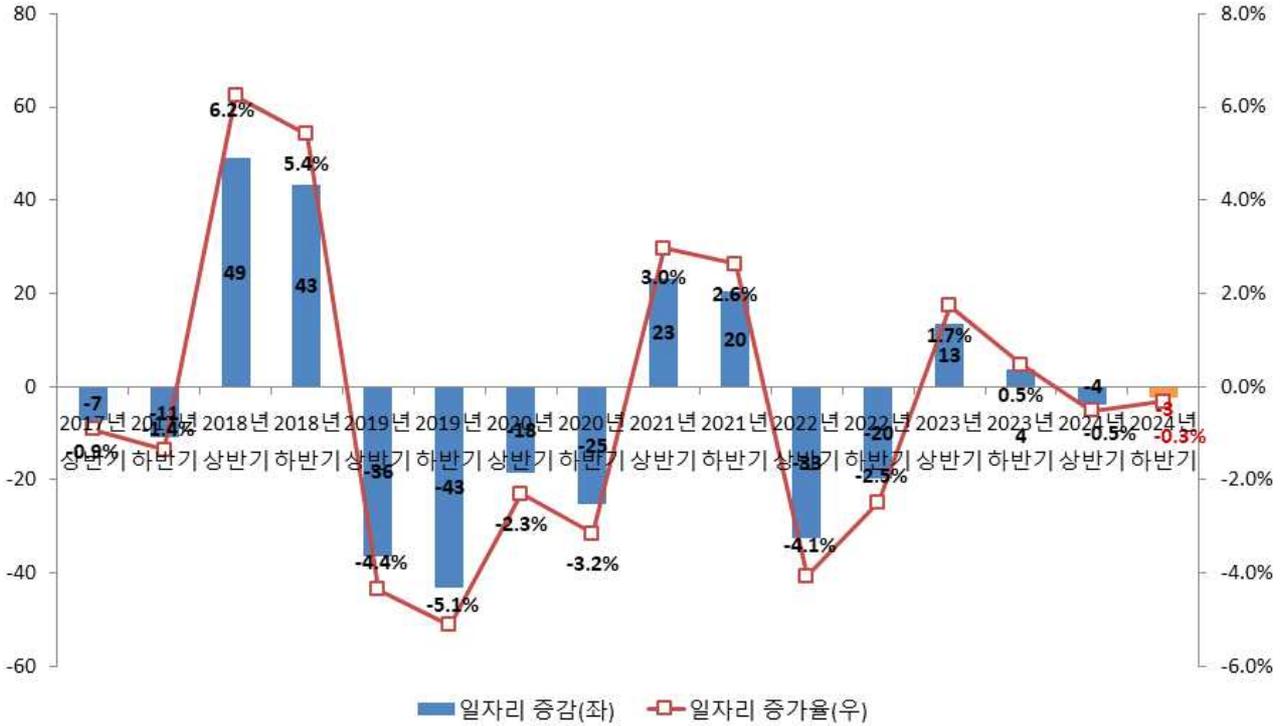
경기전망

- 은행업은 2024년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금리 상승 영향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
- 보험 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 여력 축소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생명보험 산업은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가폭 축소로 카드 이용액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증권 산업은 증시가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24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3.2	3.0	2.6	-4.1	-2.5	1.7	0.5	-1.0	-0.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하반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3%(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용어정의>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건설, 금융 및 보험 업종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